

제11회 SAF 여름건축학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발제문

주 제 : 틈새건축 _ Architecture in Between

Key Word: 자투리, 틈새, 빈틈, 라이프스타일, 재생, 재활용, 공유

개인의 취향과 콘텐츠가 소비되는 도시 “틈새 사이로 보이는 혁신의 아이콘”

통계청과 서울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저성장기 이어지면서 오늘날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주어진 공간(건축)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제 공간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혹은 공간을 제공하는 제공자로서 선택과 선택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공간 구성 능력과 운영 프로세스에 달려있다. 이처럼 공간과 공간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사용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과 공간, 시간과 시간, 인간과 인간, 개념과 개념 사이의 “틈새”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본 공모전은 이러한 서울시의 틈새 공간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공간을 개개의 콘텐츠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시대의 변화를 다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한다. 도시의(서울) 가치는 결국 시민에 의해 형성된다. 장소, 즉 공간의 가치는 오로지 그 장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몫이며, 그 시민에 의해서 도시는 생성되었다 소멸된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도시들을 보면 모두 이러한 소소하고 개성 넘치는 틈새 공간들이 모여 지금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에는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틈새가 존재한다. 이번 여름 건축학교의 주제인 틈새 건축(Architecture in between)은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틈새’를 발굴하고 건축적 해결책을 제안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과 환경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틈새 건축은 물리적인 빈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작은 공간을 활용한 협소주택, 기존에 없던 공유 주거나 공유 오피스와 같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건축, 반려동물을 위한 건축, 마포 석류비축기지와 같이 재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건축, 등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서울을 온전히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공간을 해석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담아내야 한다.

공간도 이제 하나의 공유 자원이며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간이 왔다.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서울 내에 가치가 없던 공간과 개념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건축적 해결책 제시가 제안되길 소망한다.

<예시>

도시재생



당인리발전소 마포석류비축기지 여의도 SEMA 뮤지빙스 보안여관 서울로 7017

공간적 틈새 <협소주택, 자투리 땅>

제도적 틈새 <용적률>



콘텐츠/운영 틈새 <공유주거>

공유 오피스 <사용권>



기능적 틈새: 틈새 농부 <도시 농업>

틈새 공원

